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54차 CATI조사

제69차 ARS조사

71차

# 여론조사꽃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CATI &amp; ARS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6.6	35.5	27.1	10.9
ARS	26.1	42.4	22.2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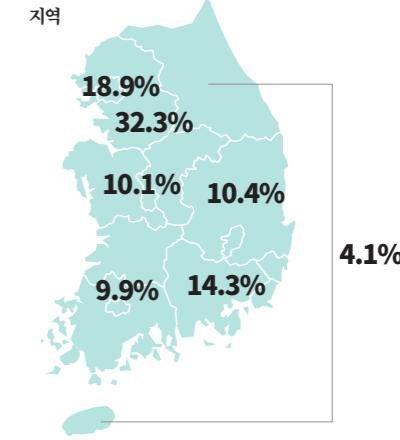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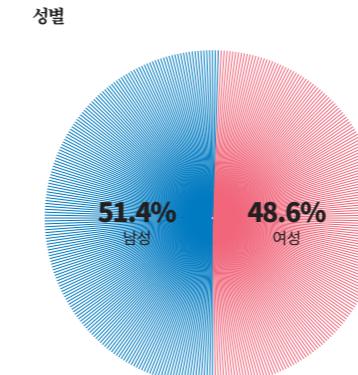
● 진보 ● 중도 ● 보수 ● 절모름

**CATI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9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2.7% [총 통화시도 7,947명]
조사기간	2024년 01월 12일 ~ 01월 13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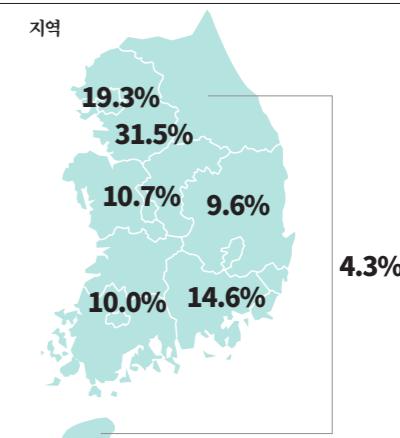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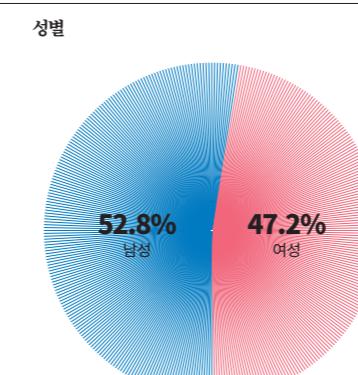
전체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519	51.4	500	49.6
	여성	490	48.6	509	50.4
연령	만18-29세	168	16.7	162	16.1
	30대	150	14.9	150	14.9
	40대	182	18.0	181	17.9
	50대	194	19.2	197	19.5
	60대	175	17.3	173	17.1
	70세이상	140	13.9	146	14.5
지역	서울	191	18.9	188	18.6
	인천경기	326	32.3	324	32.1
	대전세종충청	10.2	10.1	106	10.5
	광주전라	100	9.9	98	9.7
	대구경북	105	10.4	98	9.7
	부산울산경남	144	14.3	152	15.1
	강원제주	41	4.1	43	4.3

**ARS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5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2.7% [총 통화시도 36,649명]
조사기간	2024년 01월 12일 ~ 01월 13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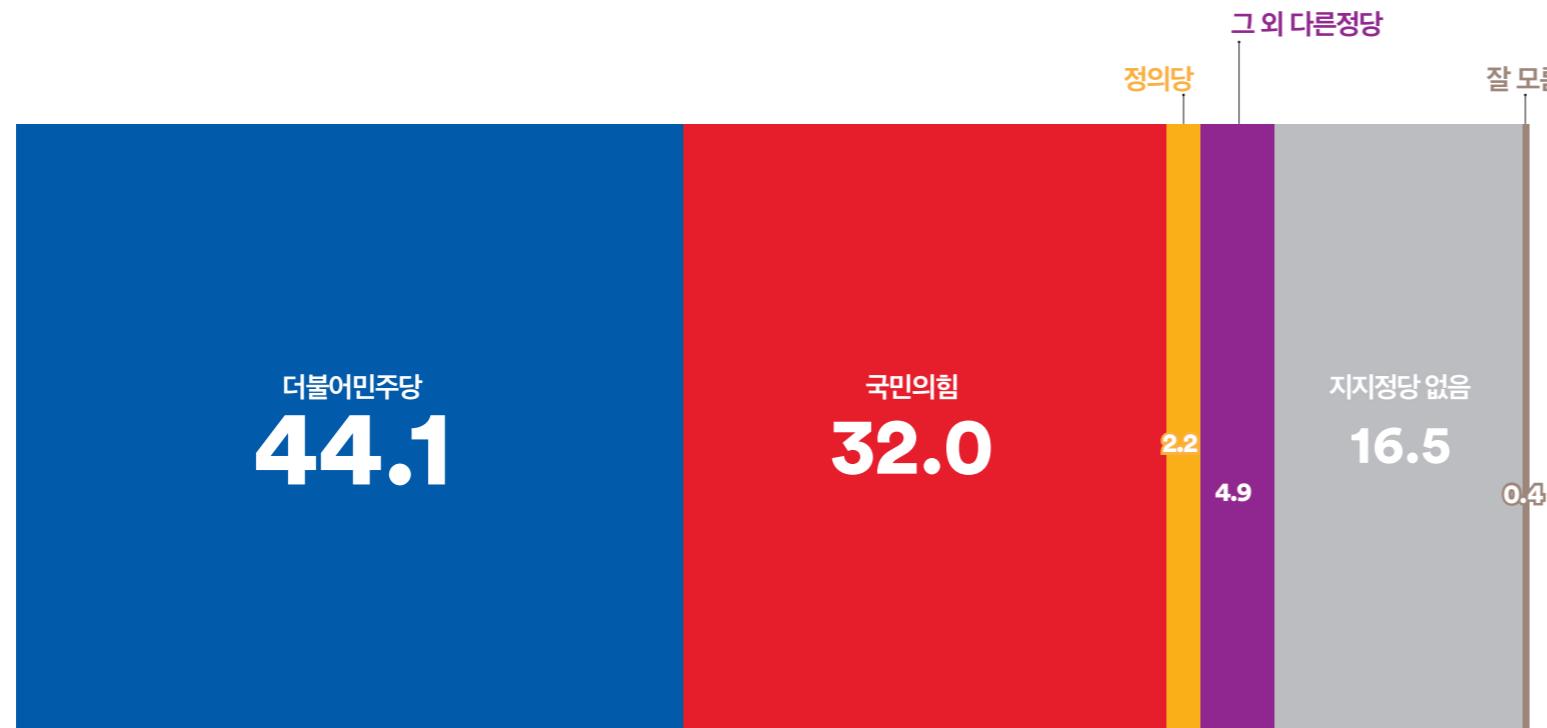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전체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531	52.8	499	49.7
	여성	474	47.2	506	50.3
연령	만18-29세	116	11.5	161	16.0
	30대	143	14.2	149	14.8
	40대	194	19.3	180	17.9
	50대	214	21.3	197	19.6
	60대	189	18.8	173	17.2
	70세이상	149	14.8	145	14.4
지역	서울	194	19.3	188	18.7
	인천경기	317	31.5	322	32.0
	대전세종충청	108	10.7	106	10.5
	광주전라	100	10.0	98	9.8
	대구경북	96	9.6	98	9.8
	부산울산경남	147	14.6	150	14.9
	강원제주	43	4.3	43	4.3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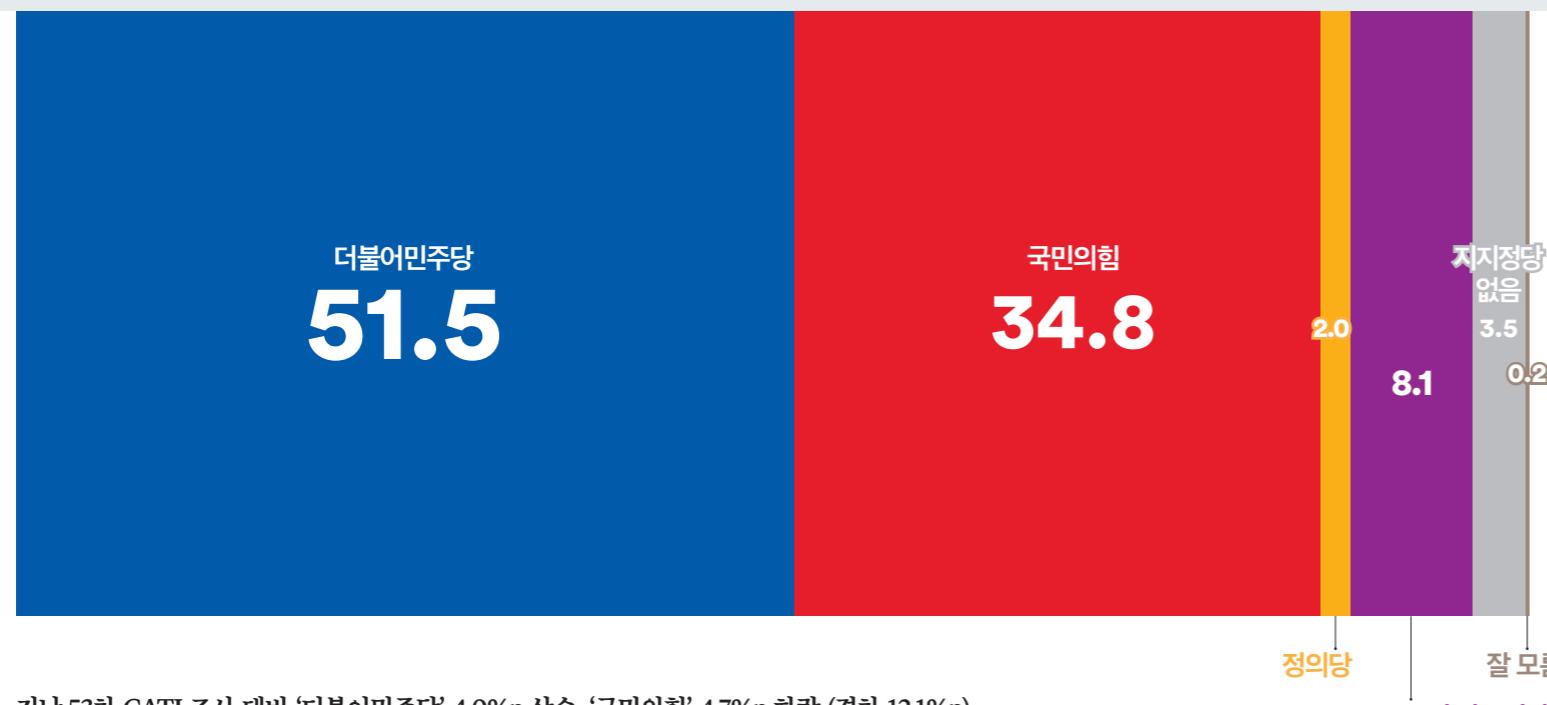
CATI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6.3	40.0	58.6	62.1	39.5	31.0
	31.7	21.9	15.3	22.2	46.7	59.0
	6.6	6.3	5.6	2.2	1.1	1.1
	32.0	30.5	18.9	9.2	6.8	6.2

이념성향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82.0	44.9	14.2	24.7
	6.4	22.0	70.1	30.1
	6.2	21.6	10.0	41.0

ARS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46.9	49.2	64.4	59.8	50.8	32.2
	31.4	33.3	24.0	26.6	40.0	58.1
	6.0	8.8	5.7	9.9	5.5	6.3
	12.3	7.4	5.7	9.9	5.5	6.3

이념성향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83.7	51.7	18.9	33.1
	9.3	8.7	13.2	7.6
	8.7	13.2	12.8	12.8

지난 53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4.0%p 상승, '국민의힘' 4.7%p 하락 (격차 1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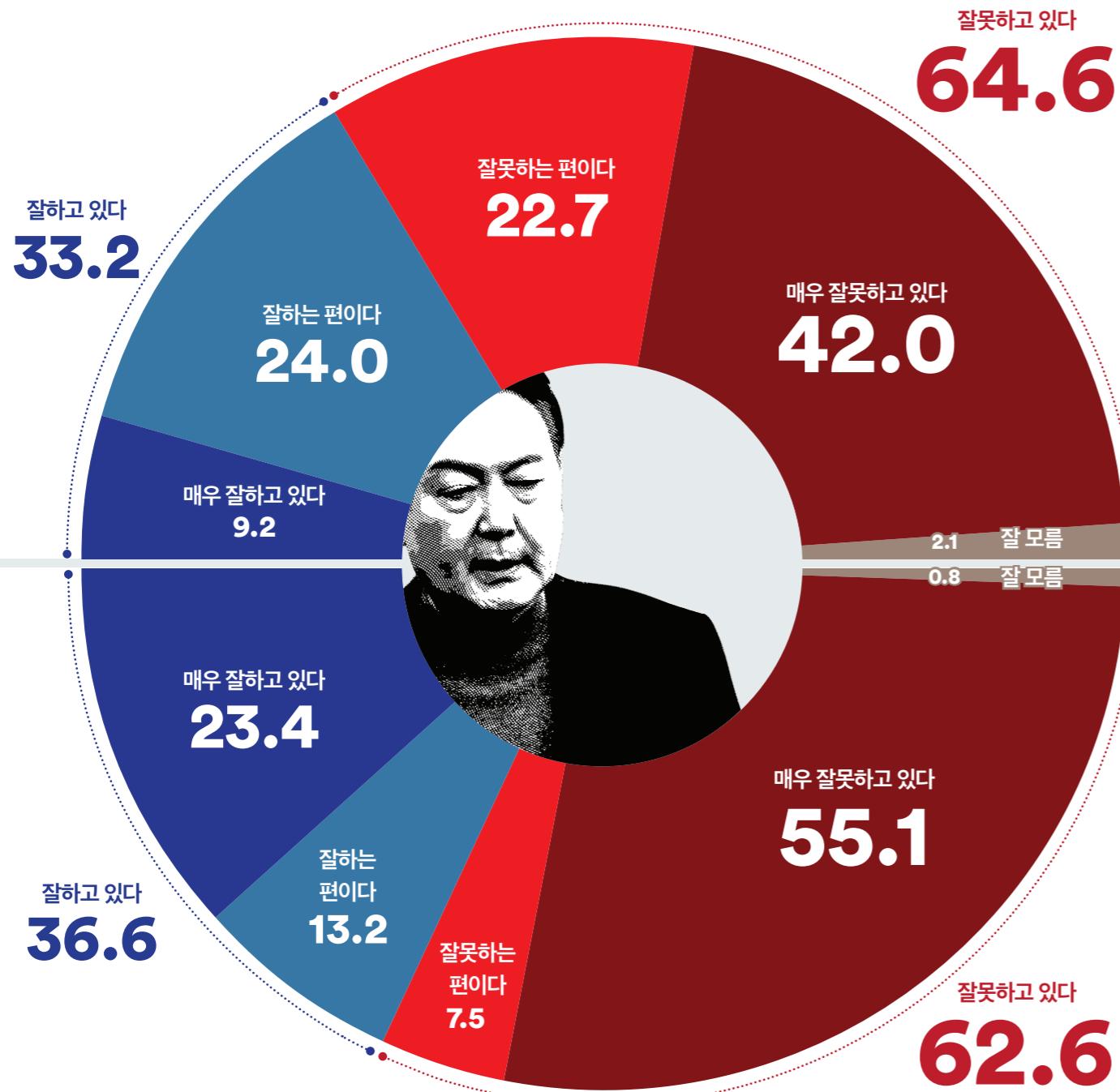
지난 68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1%p 상승, '국민의힘' 1.3%p 하락 (격차 16.7%p)

두 조사 모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TK권에서 앞서거나 우세

40·50대(ARS 30대 포함),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지난 53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 2.0%p 하락, '부정' 평가 2.2%p 상승 (격차 3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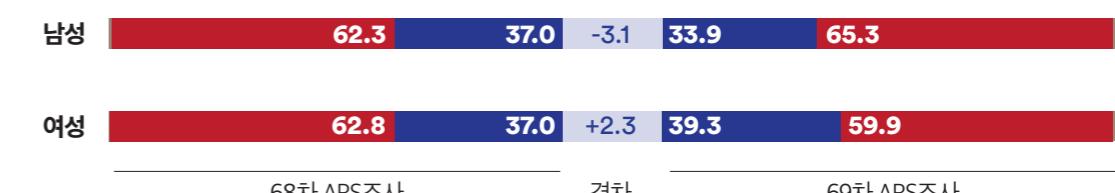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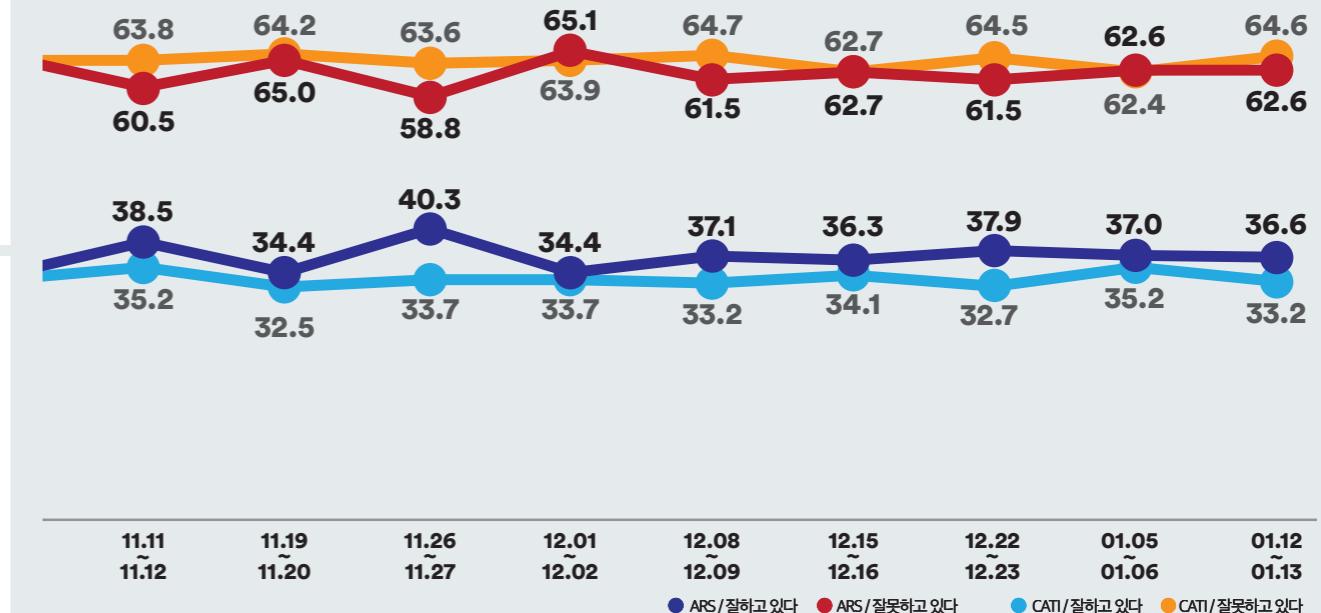
지난 68차 ARS 조사 대비 '긍정' 평가 0.4%p 하락, '부정' 평가 변동없음 (격차 26.0%p)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ARS는 60대 포함)은 '부정' 평가, 70세 이상은 '긍정' 평가 우세

중도층의 긍·부정 평가 격차는 CATI 조사 53.1%p(지난 조사: 48.5%p), ARS 조사 32.9%p(지난 조사: 2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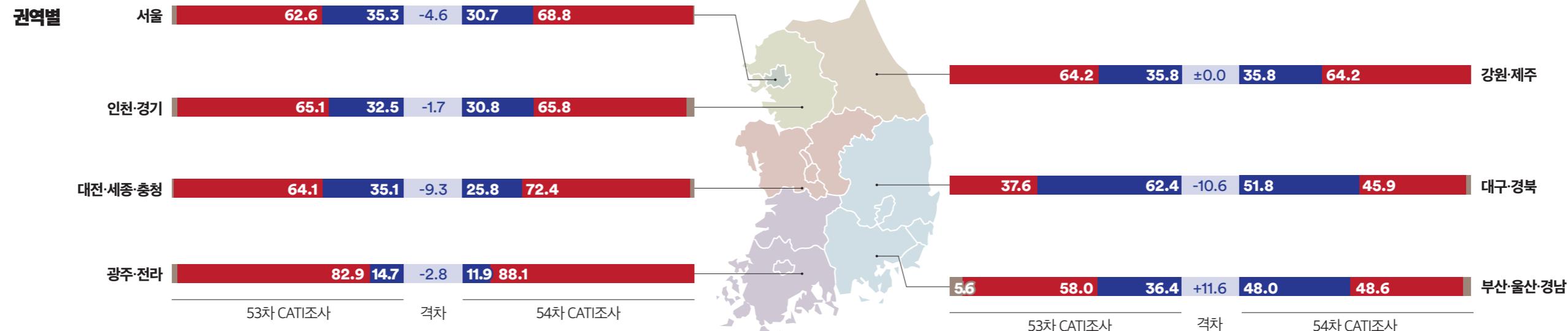


##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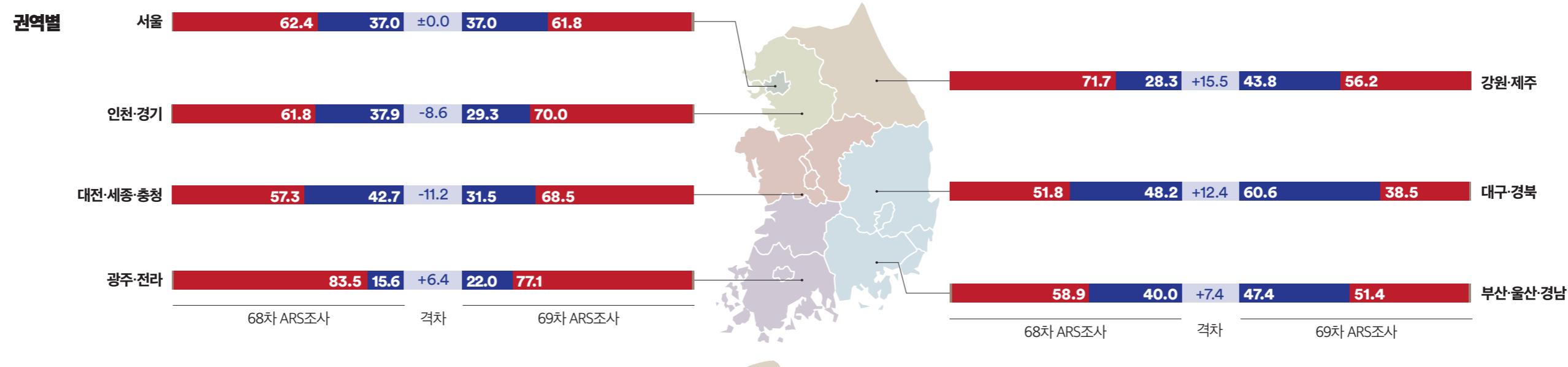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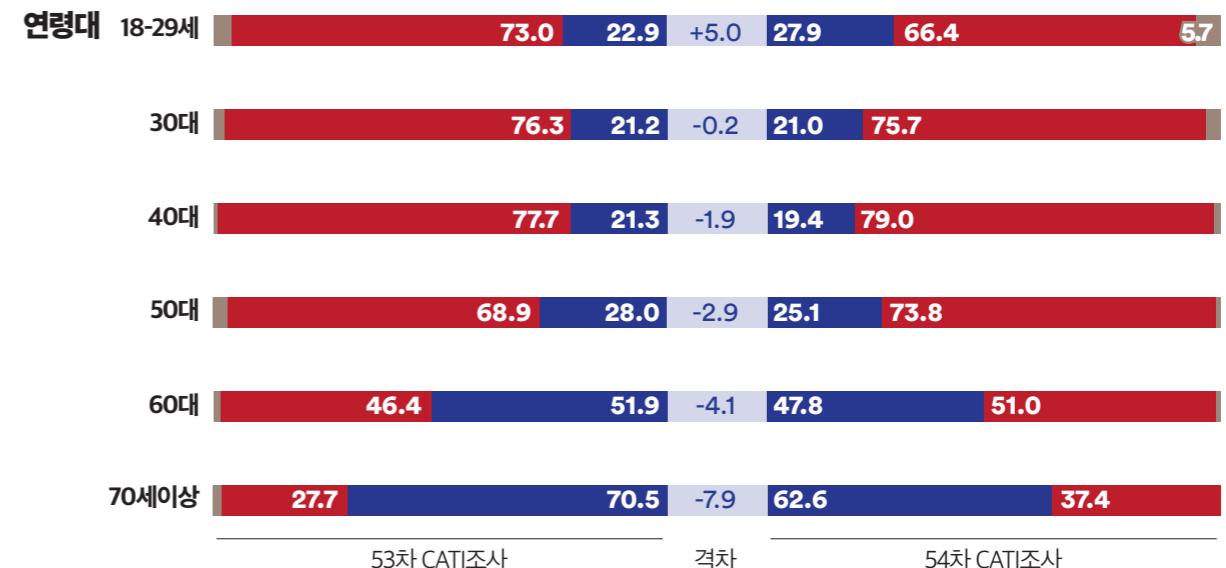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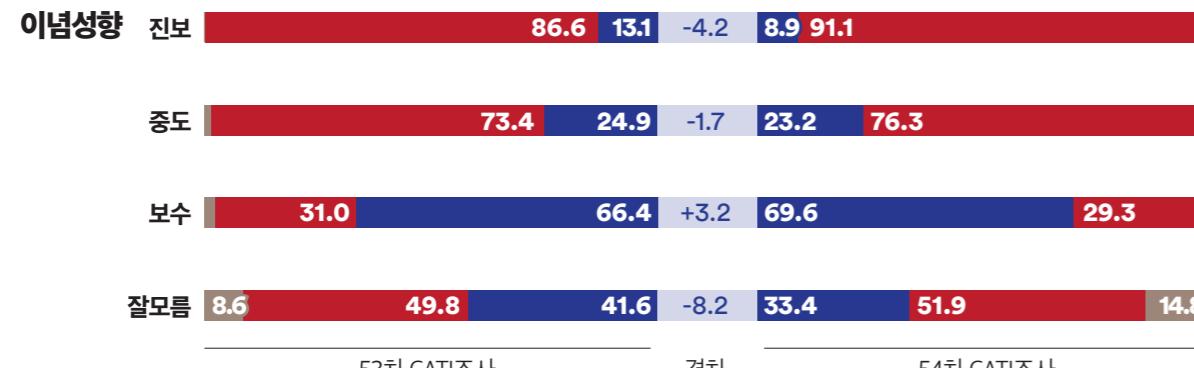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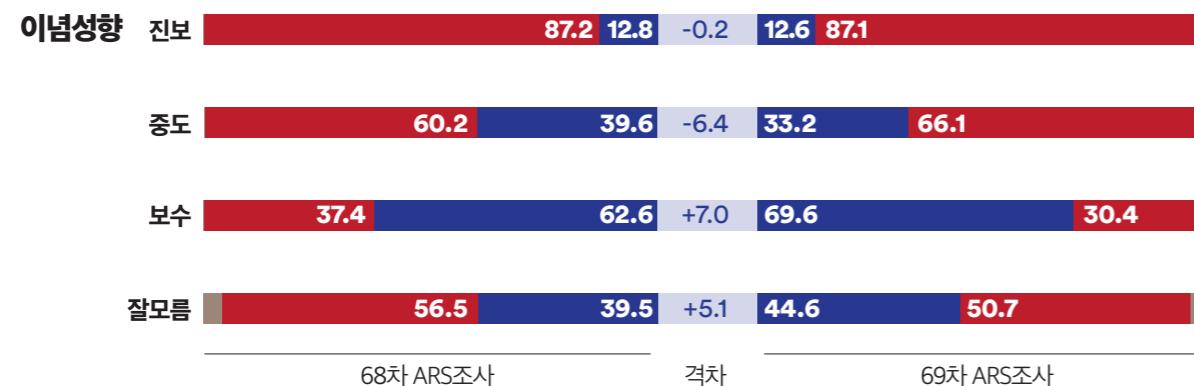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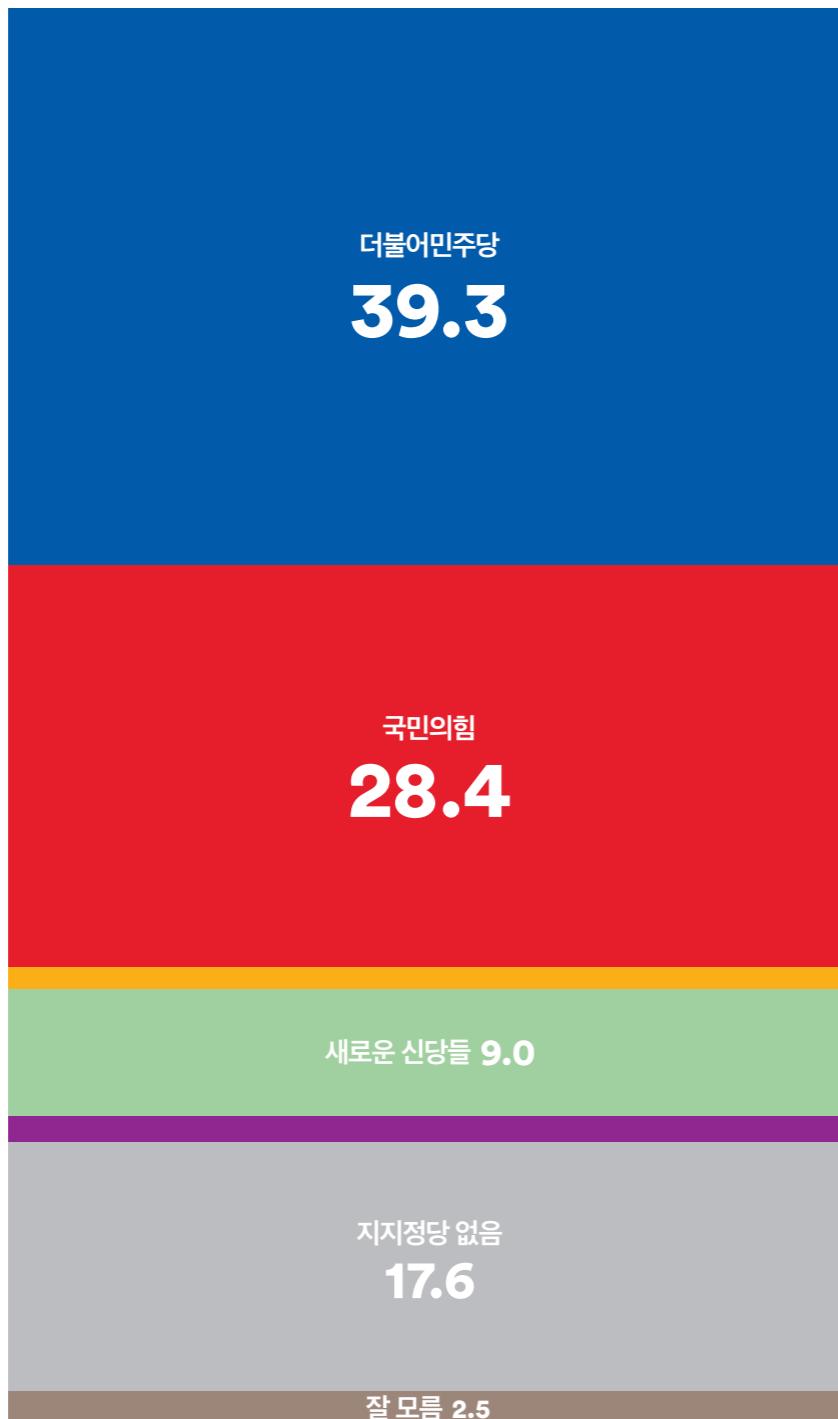


##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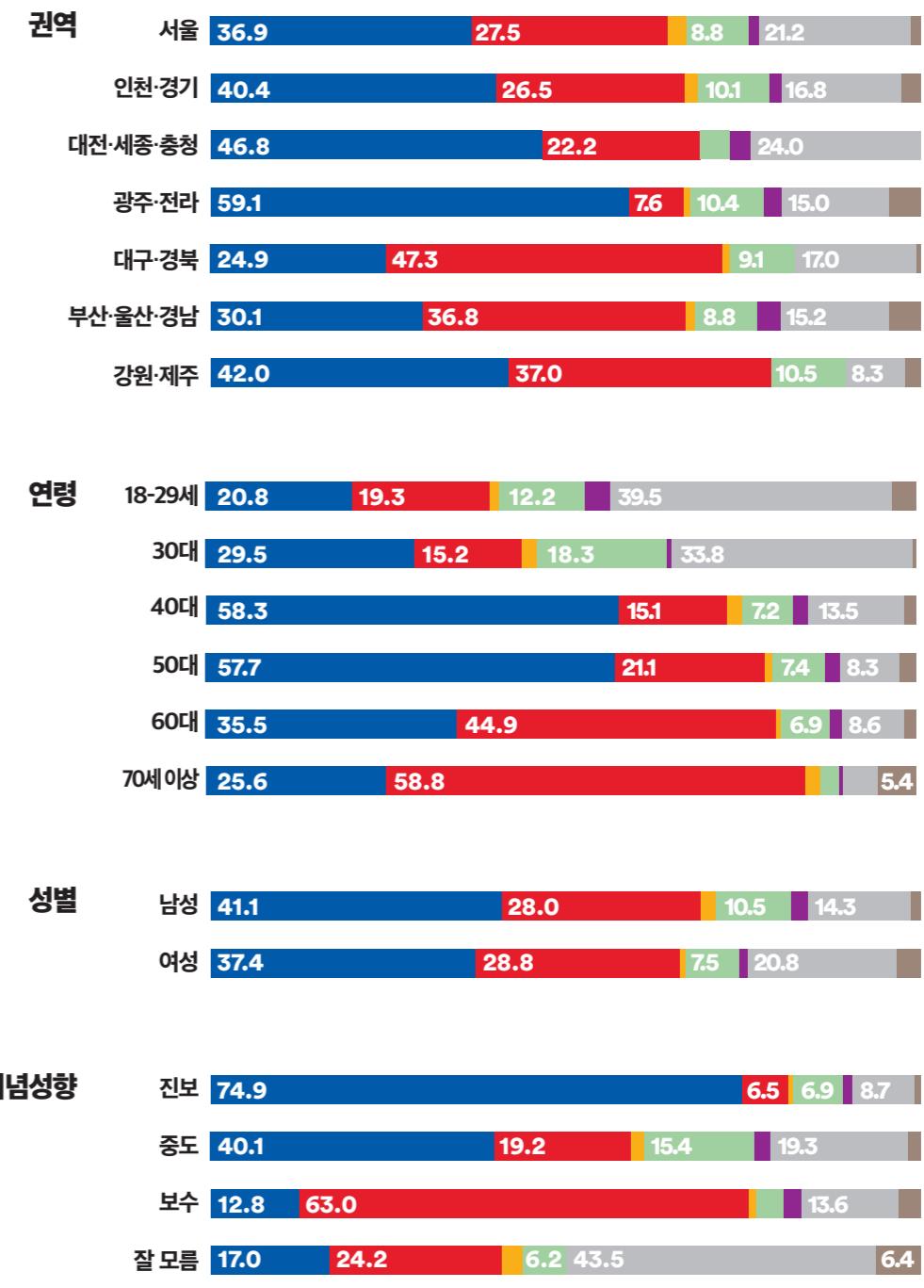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 대비 앞섬(격차 10.9%p)

지난 53차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3.0%p 증가, ‘국민의힘’은 4.7%p 감소, ‘새로운 신당들’은 1.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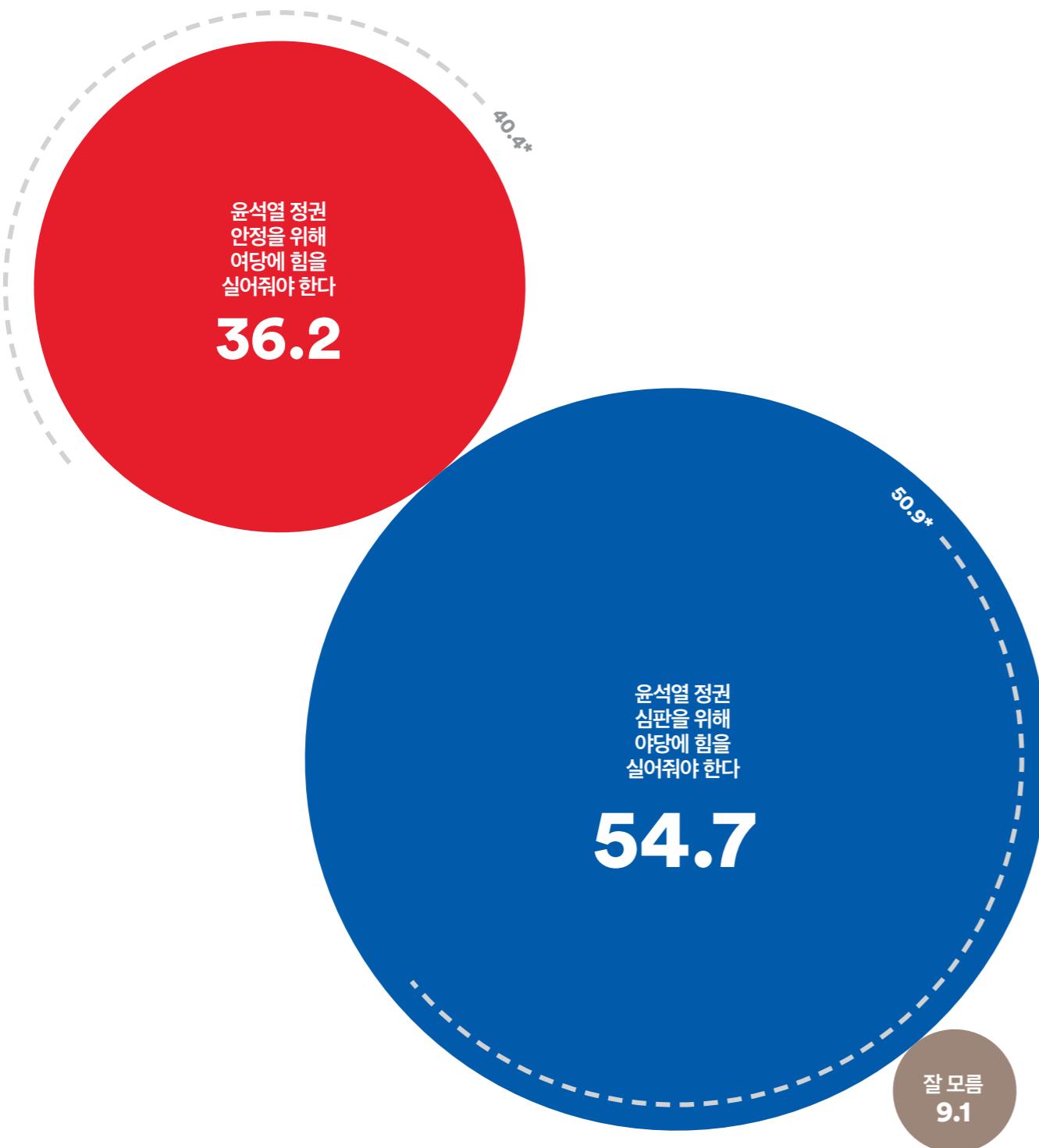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와 PK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

모든 성별, 중도층, 30대~50대는 ‘더불어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 격차 20.9%p)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새로운 신당들  
그외다른정당      없음      잘 모름

Q. 차기 총선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는 순환됩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 우세 (격차 18.5%p)

수도권, 충청, 호남, 강원·제주 및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정권 심판론', TK, PK 및 60대 이상 응답층은 '정권 안정론'이 앞서거나 우세

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 격차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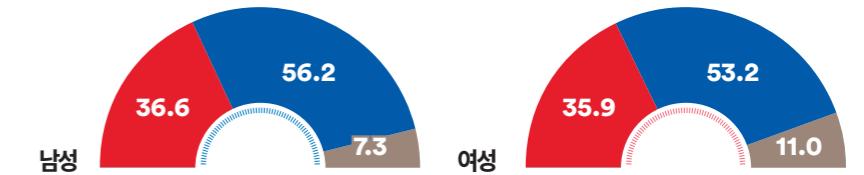
### 연령

18-29세	37.2	48.4	14.4
18-29 남성	53.3	34.2	12.5
18-29 여성	19.9	63.7	16.5
30대	24.9	62.0	13.1
30 남성	29.6	59.3	11.1
30 여성	19.8	64.8	15.4
40대	22.6	68.4	9.0
50대	26.0	66.6	7.4
60대	50.7	44.1	5.2
70세 이상	60.4	33.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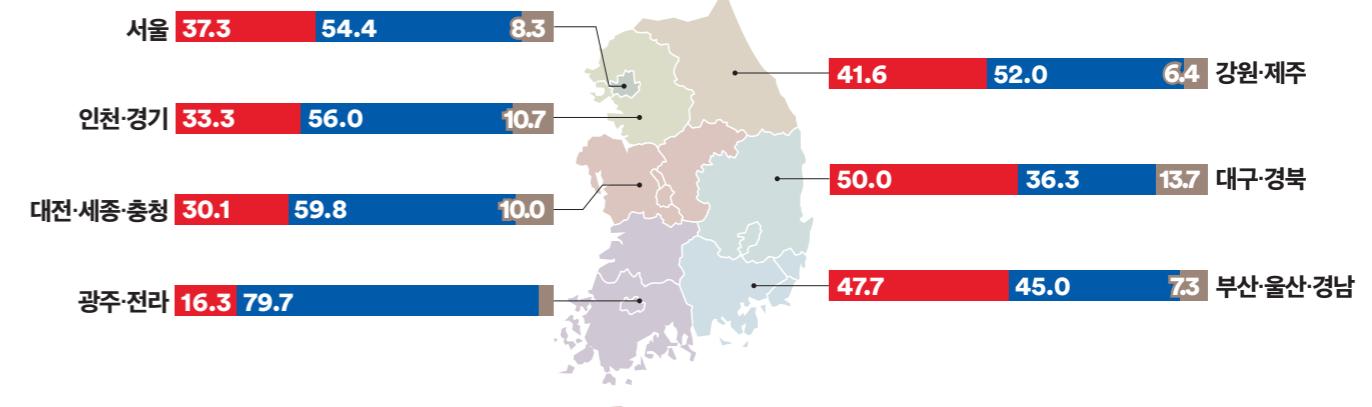
###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4.3	
국민의힘	87.0	6.5 6.5
정의당	18.5	78.1
그외 다른정당	37.0	53.0 10.1
지지정당 없음	26.3	39.6 34.0
잘 모름	49.8	50.2

### 성별



### 권역



\* 53차 CATI 조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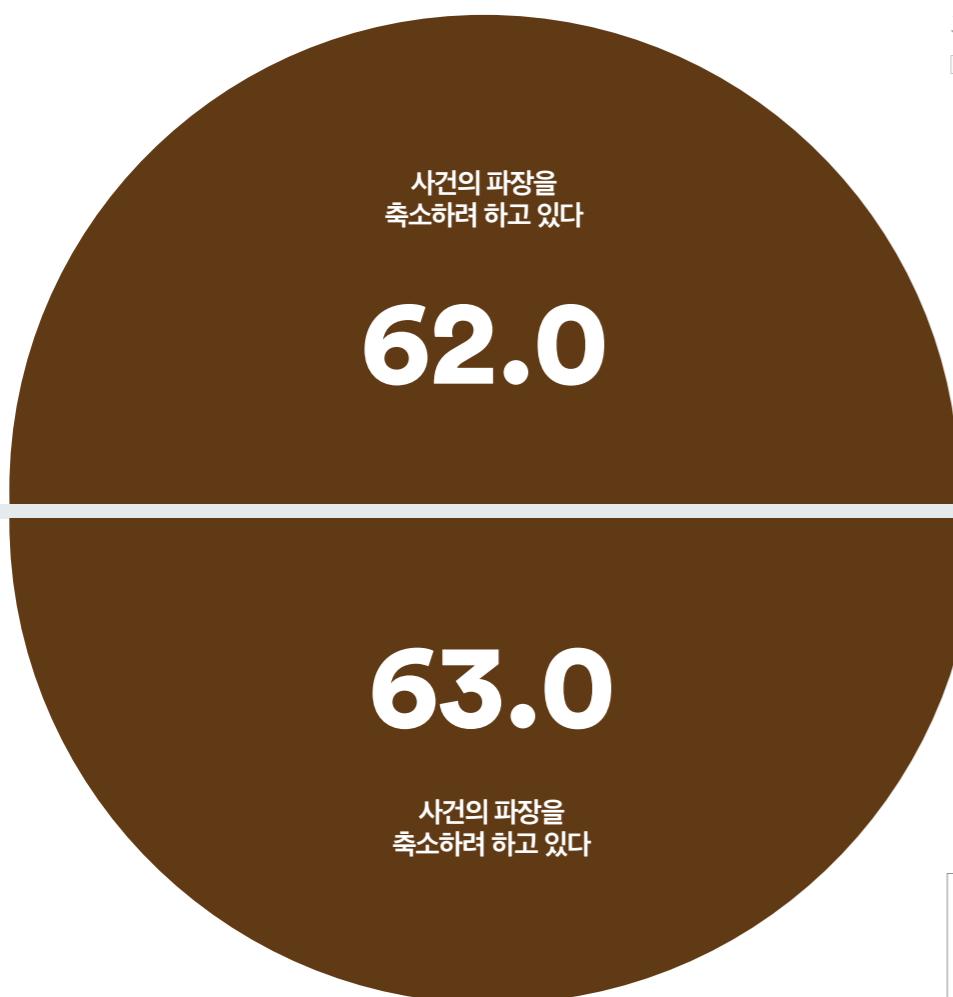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모르겠다

##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경찰 수사 방식

Q.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의 당적, 신상, 편지 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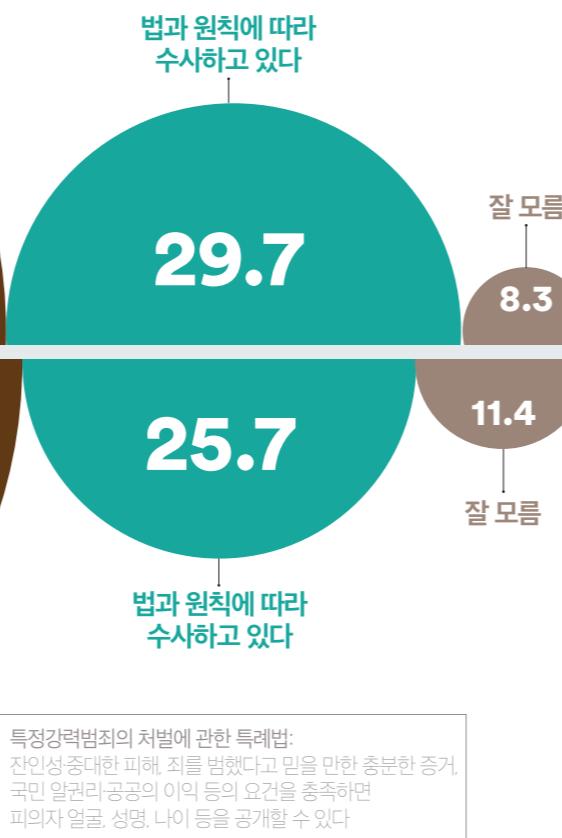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습니다”  
[2024.1.9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발표 내용 중]

ARS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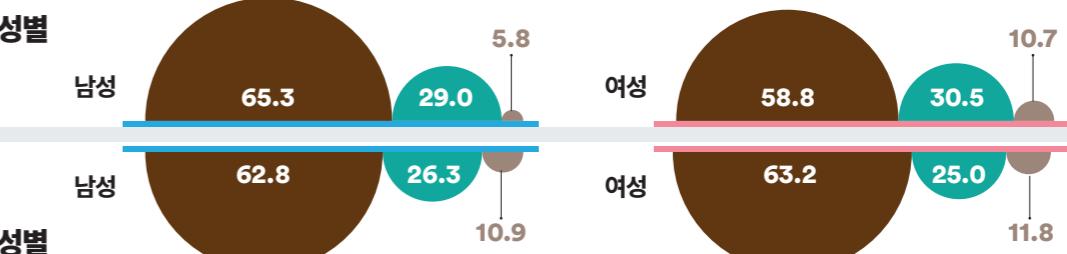
권역

서울	<b>65.2</b>	27.8	6.9
인천·경기	<b>61.9</b>	27.9	10.2
대전·충청·세종	<b>65.3</b>	29.0	5.7
광주·전라	<b>75.0</b>	16.6	8.4
대구·경북	<b>51.2</b>	36.2	12.6
부산·울산·경남	<b>56.5</b>	37.0	6.5
강원·제주	<b>55.2</b>	42.9	

연령

18-29세	<b>52.4</b>	37.8	9.7
30대	<b>64.9</b>	29.2	5.9
40대	<b>77.8</b>	18.1	
50대	<b>76.6</b>	15.9	7.5
60대	<b>51.6</b>	38.8	9.6
70세 이상	<b>42.8</b>	43.6	13.6

성별



권역

서울	<b>62.4</b>	24.1	13.5
인천·경기	<b>68.9</b>	21.6	9.5
대전·충청·세종	<b>66.1</b>	22.3	11.6
광주·전라	<b>68.9</b>	22.9	8.1
대구·경북	<b>49.7</b>	32.8	17.5
부산·울산·경남	<b>54.5</b>	33.8	11.7
강원·제주	<b>59.9</b>	32.3	7.8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b>89.2</b>	7.2
국민의힘	27.6	59.0
정의당	48.9	30.9
그외 다른 정당	55.7	24.6
지지 정당 없음	51.5	19.4
잘 모름	100.0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찰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격차: CATI 32.3%p, ARS 37.3%p)

국민의힘 지지층 중 CATI 33.3%, ARS 27.6%의 응답자가 ‘경찰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응답

CATI 조사의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경찰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응답이 앞섰

중도층은 두 조사 모두 ‘경찰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격차: CATI 31.9%p, ARS 34.4%p)

■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 모르겠다

##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단독 범행 가능성

Q. 경찰은 살인미수범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 범행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독 범행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은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고 응답(격차: CATI 17.5%p, ARS 23.4%p)

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은 모두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는 응답이 앞섰

CATI 조사의 60대, ARS 조사의 18-29세를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는 응답이 앞섰

국민의힘 지지층 중 CATI 36.2%, ARS 25.8%의 응답자가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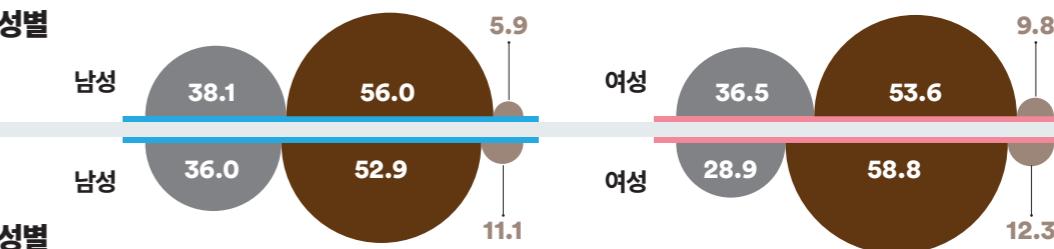
권역

서울	37.6	53.0	9.4
인천·경기	38.2	54.1	7.7
대전·충청·세종	37.0	53.8	9.2
광주·전라	23.5	72.3	4.2
대구·경북	46.0	45.7	8.3
부산·울산·경남	38.7	53.1	8.1
강원·제주	36.5	57.0	6.5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2.6	73.4	3.9
국민의힘	57.4	36.2	6.5
정의당	33.0	62.3	4.7
그외 다른 정당	40.5	45.7	13.8
지지 정당 없음	38.3	44.1	17.7
잘 모름			100.0

성별



권역

서울	30.0	55.6	14.4
인천·경기	31.1	56.7	12.2
대전·충청·세종	26.5	58.6	14.9
광주·전라	27.9	65.3	6.8
대구·경북	37.4	50.3	12.3
부산·울산·경남	42.8	47.4	9.8
강원·제주	30.8	64.6	4.6

연령

18-29세	41.7	39.5	18.8
18-29 남성	58.2	27.4	14.4
18-29 여성	23.8	52.7	23.5
30대	34.0	57.9	8.1
40대	24.2	65.5	10.3
50대	28.3	63.5	8.2
60대	32.5	57.4	10.1
70세 이상	36.3	47.8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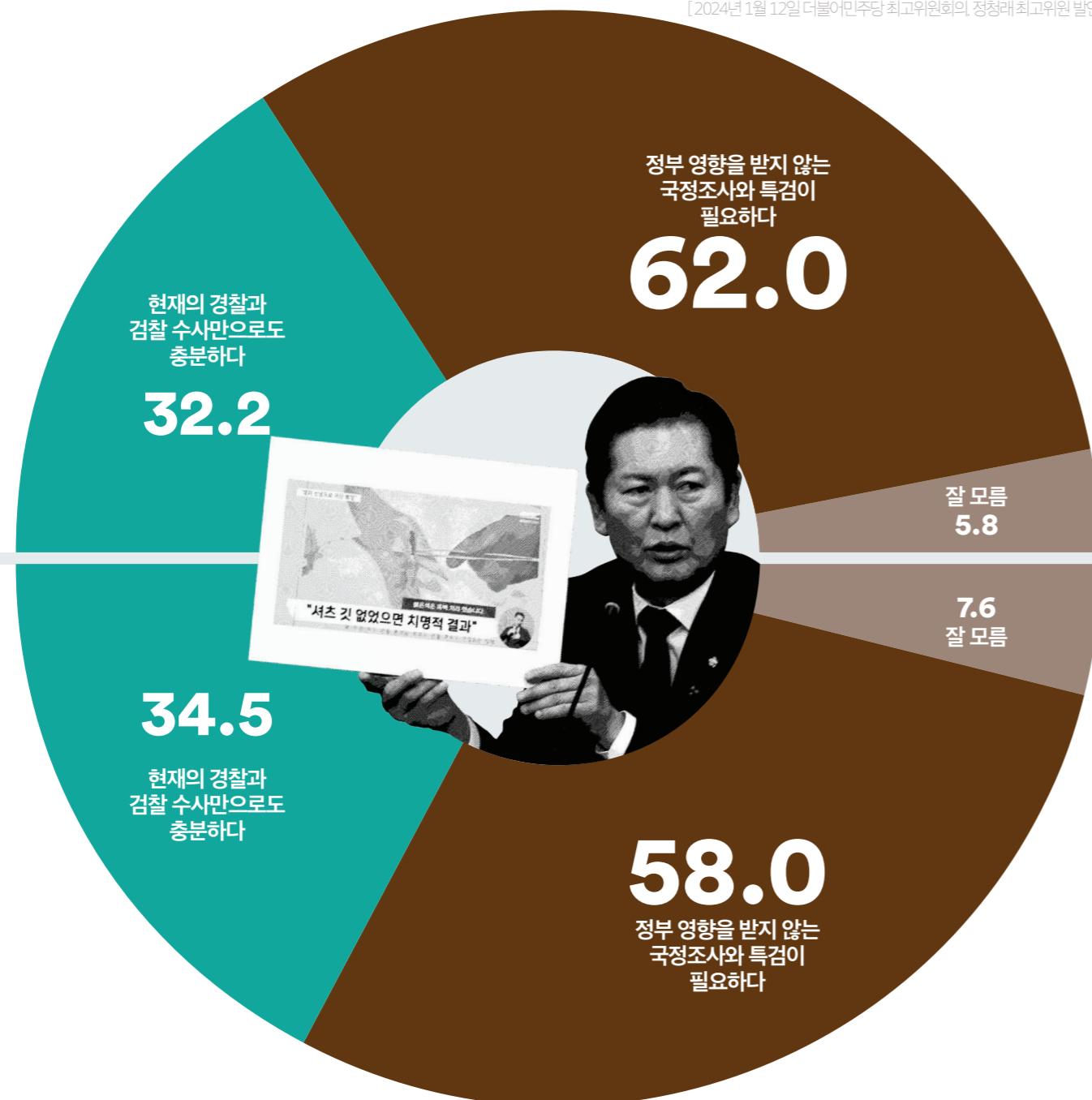
단독 범행일 것 같다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      모르겠다

##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여부

Q.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자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10명 중 6명 정도 혹은 이상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 (격차: CATI 29.8%p, ARS 23.5%p)

ARS 조사의 TK권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은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선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50대(ARS는 60대 포함)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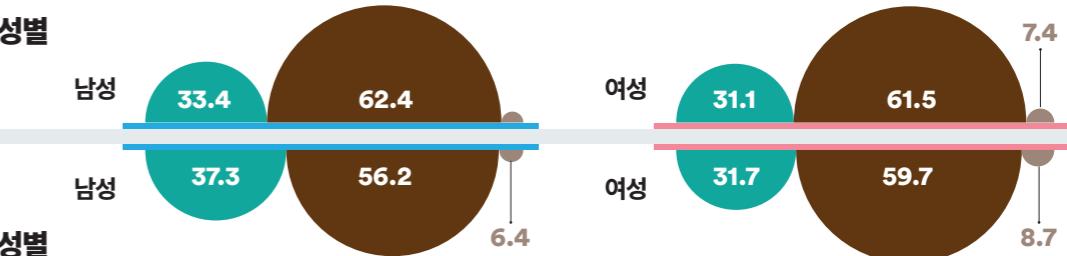
권역

서울	31.0	61.7	7.3
인천·경기	34.5	59.2	6.3
대전·충청·세종	29.1	65.9	5.0
광주·전라	14.6	80.7	4.7
대구·경북	44.7	48.7	6.5
부산·울산·경남	34.3	60.8	4.9
강원·제주	32.8	65.5	1.7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0	88.6	1.4
국민의힘	65.6	27.8	6.7
정의당	28.6	63.6	7.8
그외 다른 정당	43.5	50.5	6.0
지지 정당 없음	27.5	61.0	11.5
잘 모름	26.6		73.4

성별



권역

서울	36.8	54.7	8.4
인천·경기	28.7	64.3	7.0
대전·충청·세종	28.0	58.7	13.4
광주·전라	24.7	72.6	2.7
대구·경북	49.9	41.3	8.8
부산·울산·경남	43.9	48.0	8.1
강원·제주	37.8	62.2	0.0

연령

18-29세	38.2	47.7	14.1
18-29 남성	49.1	33.4	17.5
18-29 여성	26.3	63.3	10.4
30대	35.8	57.6	6.7
40대	25.9	70.6	3.5
50대	25.5	67.9	6.6
60대	36.5	57.5	6.0
70세 이상	49.5	41.0	9.4

현재의 경찰과 검찰  
수사만으로도 충분

정부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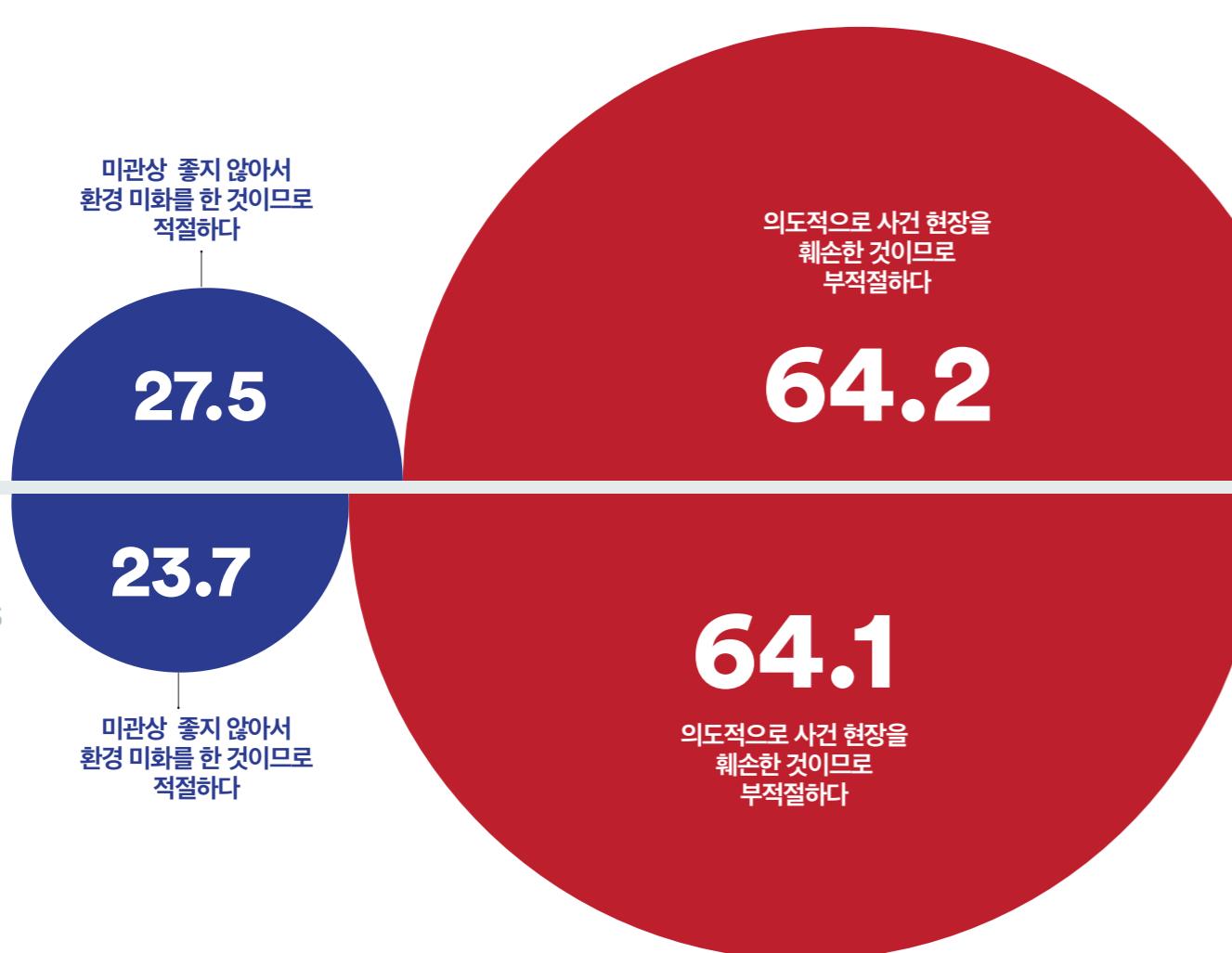
모르겠다

##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경찰의 사건현장 물청소

Q. 경찰은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발생 38분 만에 직접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의도적 현장 훼손으로 부적절하다'고 응답 (격차: CATI 36.7%p, ARS 40.4%p)

두 조사의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의도적 현장 훼손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앞섭

두 조사의 수도권, 충청, 호남, PK (ARS 강원·제주 포함), 50대 이하 응답층(CATI는 전 연령대)에서 해당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중 CATI 39.5%, ARS 30.0%의 응답자가 '의도적 현장 훼손으로 부적절하다'고 응답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 우세 (중도층 격차: CATI 32.4%p, ARS 35.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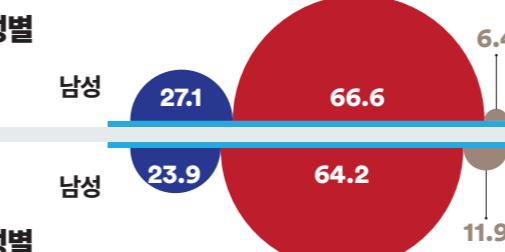
권역

서울	23.7	65.9	10.5
인천·경기	25.0	67.0	8.0
대전·충청·세종	30.4	59.3	10.3
광주·전라	18.3	71.1	10.5
대구·경북	39.1	55.4	5.5
부산·울산·경남	30.8	61.7	7.5
강원·제주	38.3	61.7	

연령

18-29세	28.0	63.2	8.8
30대	23.3	70.2	6.5
40대	23.6	73.1	
50대	17.0	76.5	6.5
60대	39.9	53.2	6.9
70세이상	35.7	44.5	19.8

성별



권역

서울	26.6	65.0	8.4
인천·경기	19.2	67.5	13.3
대전·충청·세종	14.8	70.3	14.9
광주·전라	17.5	72.1	10.4
대구·경북	32.4	48.8	18.8
부산·울산·경남	36.4	53.8	9.8
강원·제주	17.9	71.9	10.3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4	88.2	6.4
국민의힘	51.5	30.0	18.5
정의당	9.4	70.4	20.2
그외 다른 정당	27.1	58.7	14.3
지지 정당 없음	18.9	56.4	24.7
잘 모름	100.0		

환경 미화를  
한 것이므로 적절

사건 현장을  
훼손한 것이므로  
부적절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1\_05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